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 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언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차적으로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후보작들은 부산민언련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부산민주언론상으로는 다 담지 못했던 부산 지역 언론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조명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겨 기쁩니다.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은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을 선정합니다. 기획·특집 기사가 아닌 단 1건의 기사라도 꼭 필요한 목소리에 주목해 지역 사회를 밝힌 보도라면 더 많은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지역 언론의 보도·프로그램 중 지역에서 다시 회자하고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선정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KBS부산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외 6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비판하고 원인 분석에 해결책 제시까지,  
솔루션 저널리즘 무엇인지 보여준 KBS부산 성 인지 예산 점검 연속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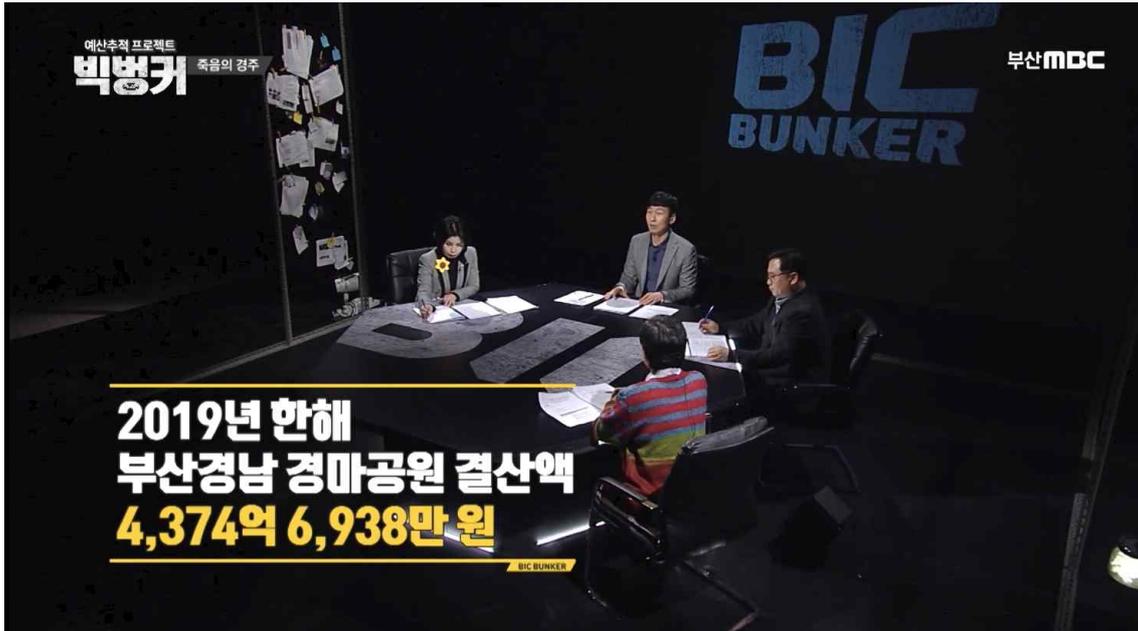


KBS부산 뉴스9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 인지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상의 문제를 7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펴기 위해 마련된 '성 인지 예산'이 오히려 성 편견을 심화시키거나 성차별을 부추기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곳에 집행되고 있던 성 인지 예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 인지 예산 전수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짚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솔루션을 제시한 KBS부산 뉴스9의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외 6건을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부산MBC 빅뱅커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1,2>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수익 분배구조 통해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고용 불안정성 드러낸 부산MBC 빅뱅커



부산MBC 빅뱅커는 2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편을 방영했습니다. 평소 방식인 예산 낭비에 대한 분석보다는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이래 7차례나 발생한 자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운영구조, 고용구조, 수입체계, 상금 분배 방식 등이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가 유언장을 통해 남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불안정한 임금구조와 종속적인 고용구조를 하나씩 짚어나가며 현장 인터뷰, 패널 발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상세히 드러낸 부산MBC 빅뱅커의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편을 통해 민간기업체와 다른, 공공기업체가 지향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살을 택한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부산MBC 빅뱅커의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국제신문 신년기획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  
 <부산에 오픈마켓 정책 없다> 외 11건

부산지역 자영업자 요구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 차원의 정책 필요성 제기한 국제신문 신년기획

오픈마켓 문턱 여전히 높아... 확장성 담보할 플랫폼도 절실

2020, 020로 따뜻하게

- 〈1부〉  
 1. 부산에 오픈마켓 정책 없다  
 2. 자갈치시장에 020가 필요한 이유  
 3. 오픈마켓이 활성화될 도시환경

100%Online과 Offline 결합 '마케팅' 구현의 핵심 플랫폼은 오픈마켓이다. 1999년 출시된 이베이코리아 사이트가 성공을 연지 20년, 오픈마켓은 이미 생활 속의 자영업은 물론 플랫폼에서부터 부산에서는 오픈마켓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찾기 어렵다. 자갈치 시장과 인근에 오픈마켓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오픈마켓 진입의 높은 벽  
 "오픈마켓은 진입이 어렵고 해서 쉽게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8월 부산 수영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수영구센터)에서 열린 20년 기념 행사에서 김국수 센터장은 "오픈마켓 진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갈치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사에 참가한 자갈치시장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오픈마켓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국수 센터장이 좌측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제공)

김국수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는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이 활성화될 도시환경을 위한 시 차원의 정책 필요성 제기한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픈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오픈마켓에 진입하려면 상품 등록, 배송,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1월 2일부터 16일까지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 신년기획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만 많이 등장하는 중에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오픈마켓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 기획입니다.

기사는 부산지역의 중소상공인도 온라인 판매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전 과정을 혼자서 하긴 힘든 현실을 전달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징어포와 미역을 평생 팔아온 60대 상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구체적 사례 제시 이후, 충청북도의 '원스톱 서비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제신문과 공동 콘텐츠 협약을 맺은 KNN에서는 망미시장의 기름집이 온라인마켓을 열어 매출이 증대한 사례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인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을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선정하진 못했지만 꼭 언급하고 싶은 좋은 보도

1분기엔 최종적으로 선정하진 못했지만 좋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KBS부산 뉴스9의 <‘자회사 추진단’ 구성... 지침 위반 논란>(2/3), <‘자회사 추진단’... 논란 일자 단어 삭제>(2/4)은 다른 지역 언론은 보도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추진’에 주목해 절차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KNN 뉴스아이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KNN은 <부족한 마스크, 노약자·이주노동자 엄두 못 내>(3/3)는 마스크 필수 시대에 소외되는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고 지자체를 통한 직접 배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 ‘지역차가 너무 커’>(3/4)와 <의료취약지도로 본 지역별 불평등>(3/19)은 특히 서부경남 지역이 의료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지역 주민이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잘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뽕 뚫린 운동장에 드론 방역, 효과 있나?>(3/6)에서는 효과없다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서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경쟁을 줄여줬습니다. 전시행정이 불필요한 자원낭비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 리포트로는 <지자체 마스크 배부, 부익부 빈익빈?>(3/22)도 있습니다. <끝>

■ 좋은 보도 다시보기

[\[집중1\]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1/8\)](#)

[\[집중2\] 한 해 1조 원...집행은 제멋대로\(1/8\)](#)

[오히려 성평등에 역행\(1/9\)](#)

[\[성 인지 예산4\] “행안부 지침 따랐다”...실체는 탄탄\(1/10\)](#)

[무늬만 ‘자문’...결국 ‘실적 경쟁’\(1/13\)](#)

[‘심의’도입했지만...현장은 외면\(1/15\)](#)

[‘성 인지 예산’이렇게...제도 마련 시급\(1/16\)](#)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1 \(2/4\)](#)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2 \(2/11\)](#)

[2020...020로 따뜻하게 <1-1> 부산에 오픈마켓 정책 없다\(1/2\)](#)

[2020...020로 따뜻하게 <1-2> 자갈치시장에 020가 필요한 이유\(1/9\)](#)

[2020...020로 따뜻하게 <1-3>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1/16\)](#)